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권 2호 (2015년 6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목 차

중년자녀가 지각한 노부모와의 갈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수균 · 신현희 · 안정신 · 정영숙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간의 종단적 상호관계: 교류모형적 접근 장혜인

중학생의 아버지 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심다혜 · 이승연

남녀 청소년의 수치심/죄책감 경향성, 반응양식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신다원 · 방희정 · 옥 정

형태소인식의 한국어와 영어 간 전이와 읽기 쓰기와의 관계 김상미 · 김지연 · 조종열

노인과 대학생이 정치적 선택상황에서 고려하는 정보의 차이 김태화 · 김혜리

초기 한글 읽기 발달에서 실행 기능의 역할: 억제 능력 및 인지적 유연성을 중심으로 주나래 · 최영은 · 조종열

만 10개월 영아들의 언어적 단서를 활용한 타인의 목표 행동 이해 김민주 · 송현주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 양육태도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배민정 · 정윤경

형태론적 언어 정보 활용을 통한 타인행동 목표 추론 능력의 영아기 발달 김은영 · 송현주

한국발달심리학회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발 달

제 28 권 제 2 호 / 2015. 6

중년자녀가 지각한 노부모와의 갈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수균·신현희·안정신·정영숙 / 1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간의 종단적 상호관계: 교류모형적 접근 장혜인 / 19
중학생의 아버지 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심다혜·이승연 / 41
남녀 청소년의 수치심/죄책감 경향성, 반응양식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신다원·방희정·옥 정 / 63
형태소인식의 한국어와 영어 간 전이와 읽기 쓰기와의 관계 김상미·김지연·조증열 / 89
노인과 대학생이 정치적 선택상황에서 고려하는 정보의 차이 김태화·김혜리 / 107
초기 한글 읽기 발달에서 실행 기능의 역할: 억제 능력 및 인지적 유연성을 중심으로 주나래·최영은·조증열 / 125
만 10개월 영아들의 언어적 단서를 활용한 타인의 목표 행동 이해 김민주·송현주 / 145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 양육태도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배민정·정윤경 / 159
형태론적 언어 정보 활용을 통한 타인행동 목표 추론 능력의 영아기 발달 김은영·송현주 / 175

한국발달심리학회

중년자녀가 지각한 노부모와의 갈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 수 균¹⁾ 신 현 희¹⁾ 안 정 신²⁾ 정 영 숙¹⁾

¹⁾부산대학교 심리학과

²⁾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는 중년자녀가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을 탐색하고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년자녀와 노부모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상황에서 중년이 지각하는 갈등을 확인하고 갈등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른 남녀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0세부터 59세까지 중년자녀를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지를 실시하였고, 남자 62명, 여자 74명으로 136명의 자료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중년이 경험하는 갈등영역은 '노부모와의 관계' 영역, '노부모의 자기관리'영역 그리고 '손·자녀문제'영역으로 나타났다. 중년자녀는 '노부모와의 관계'영역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며 특히, 중년남성보다 중년여성이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부모와의 관계'영역 내에는 '편애', '무시', '중년자녀에 대한관심 및 배려부족', '부양부담', 그리고 '노부모의 지나친 헌신'이 포함되었는데, 제시된 순서로 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애'와 '중년자녀에 대한 관심 및 배려부족' 모두에서 중년여성이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주요어 : 중년, 노부모, 갈등, 탐색적 연구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3A2054886).

† 교신저자: 정영숙,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Tel: 051-510-2135, E-mail: yschong@pusan.ac.kr

중년들은 이른바 ‘베이비 붐 세대’, ‘끼인 세대’로써 가족관계 안에서 위로는 노부모를 부양하고 아래로는 자녀를 양육해야 하며, 동시에 자신의 과업까지 달성해야 하는 삼중고를 경험하는 세대인 가족 부양자로서 여겨져 왔다(중년의 사회학, 2012).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 중년을 일컫는 새로운 용어로 ‘줌마렐라(아줌마+신데렐라)’, ‘노무족(NOMU: No more Uncle)’, ‘하하족(HAHA: Happy aging Healthy & Attractive)’, ‘신(新) 중년’ 등과 같은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 과거 전통적인 가족부양에 대한 가족중심의 역할기대에서 벗어나 중년 남성과 여성 자신에 대한 적극적인 자기관리와 문화생활이 증가되었으며,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참여가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중년세대들은 중년을 단순히 위기의 시기로만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새롭게 탐색하고 변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낮은 출산율과 사망률 그리고 핵가족화의 자리매김은 가족구조의 변화와 그 안에서 세대들 간의 가치관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가족구조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노인 부부나 독거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인 1세대 가구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자녀와 동거하는 2세대 가구의 감소이다(전예슬, 2009). 60세 이상 노부모 또는 노부부만으로 구성된 ‘빈 등지 가구’는 2000년도에는 30.7% 이었고, 2010년도에는 32.1%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13). 즉,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순수 노인가구의 비율이 점차 증가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녀들은 노부모와 같이 동거하며 부양해야하는 부담감이 감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이다. 더욱이,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정부는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새로운 부양체제를 모색하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정규형, 김종성, 윤지희, 2013).

이러한 중년개인의 심리내적인 긍정적인 변화, 가족체계의 변화, 그리고 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노부모와의 갈등을 극단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노인학대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학대는 주로 가족구성원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데 특히, 아들·딸에 의한 학대가 72.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학대 행위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10대가 0.9%, 20세에서 39세가 34.1%, 그리고 40세에서 59세가 54.1%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3). 이처럼 중년자녀들에 의한 노인학대가 가장 높은 것은, 중년자녀들이 형태상으로는 핵가족 속에 살고 있고 부단히 자신의 삶을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노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가부장적 가치관 속에 있게 되므로 노부모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 질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중년자녀와 노부모 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위해 중년자녀와 노부모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양상을 살펴보고 심리적 갈등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심리학적 발달상 중년기는 신체·생리적 감퇴가 서서히 나타나고 가정과 사회에서는 책임과 역할 권한이 절정에 달하는 반면에 내적·외적 한계 역시 느끼기 시작한다. 또한 가정 내에서는 부부, 자녀,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Levinson, 1978). 또한 중년기의 핵심적인 심리사회적 발달 과제로 Erikson(1982)은 생성감을, Havighurst

(1972)는 여가활동 개발, 경제적 수준 형성과 유지, 그리고 노부모와의 화합을 강조하였다. 한편, 노년기는 노인개인의 신체·심리적 건강·기능 수준의 변화로 인한 영향이 삶의 모든 영역에 파급되는 시기인 동시에(Erikson, 1982) 삶의 의미를 찾고 죽음을 현실로 인정하며 가족 안에서 만족을 찾는 등과 같은 발달과업을 이루어야 한다(Havighurst, 1972).

이처럼 노부모와 중년자녀는 살아온 경험과 생애단계가 다르고, 각 발달단계에서 이루어야 하는 발달과제 역시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기대가 일치하기 쉽지 않다. 특히 성별 및 친족 구성원의 역할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던 과거와 달리, 딸과 며느리 그리고 아들과 사위의 역할 경계가 유연해지고 있어서 서로에 대한 기대가 불일치 할 여지는 더욱 증가하였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를 수직적으로 규정하던 규범이 흔들리고 있어서 갈등을 느낄 때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도 이를 억누르지 않고 표현하기 때문에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여봉, 2011).

중년을 정의하는 시기는 매우 유동적이며, 학자들 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35~60세(김애순, 1993; 김종서, 남종길, 정지웅, 이용한, 1982; 서봉연, 유안진, 1983; Havighurst, 1996), 40~60세(Lavinson, 1986; Neugarten, 1997), 40~59세(김미진, 1995)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Borland(1978)는 중년기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종합하여 연령과 상관없이 막내자녀가 독립하면서부터 배우자가 은퇴하기까지의 시기를 중년기라고 구분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자녀의 독립이 늦어 막내자녀가 독립하기 이전에 배우자가 은퇴할 가능성이 크며, 배우자의 은퇴시기의 편차가 커서 서구의 가족생활주기 개념을 그

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김경신, 2010). 그리고 국민연금법상에서 노령연금 수혜연령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 대부분에서(안정신, 정영숙, 서수균, 2013; 정인숙, 2000)노인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의 시기를 40세부터 59세까지로 규정하여 중년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중년자녀가 경험하고 있는 갈등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탐색하고자 한다.

Hess와 Waring(1978)은 중년자녀와 노부모관계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노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예측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자녀가 독립된 가정을 형성하면서 노부모와 접촉하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비교적 동등한 위치에서 자립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효에 의거한 복종적인 존재이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다. 둘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부모의 부부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경제적 문제는 노부모나 중년기 자녀 모두에게 상호 어려움을 겪게 한다. 마지막으로, 중년자녀와 노부모의 역할 변화와 적응으로 인하여 두 세대 모두 경제적·정서적 지원에 대한 어려움을 야기하고 갈등이 높아질 수 있다(조병은, 2002 재인용).

이처럼 중년자녀와 노부가모가 상호작용하며 보내야하는 시기가 길어지는 만큼 두 세대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양상과 원인에도 다양한 변화를 수반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년자녀와 노부모와의 갈등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미흡하기는 하나 몇몇의 연구를 살펴보면, 중년자녀와 노부모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세대관계의 구조를 밝히거나(김두섭, 박경숙, 이세용, 2000), 중년기 부부의 노부모 부

양에 따른 부양부담감 또는 보상감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김경신, 이선민, 1998; 안선영, 1996; 옥경희, 1996). 그리고 신성자(2014)는 중년자녀들이 노부모를 돌보자 하는 실천의지에 있어서 자녀의 규범적 헌신과 정서적 헌신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원준(2012)의 연구에서는 노부모의 헌신이 결혼하여 자신의 가정을 가진 중년자녀와 노부모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중년자녀와 노부모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중년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두 세대 간 관계의 구조, 부양부담이나 자녀와 노부모의 헌신과 같은 특정 관련 변인들을 통해 중년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에 그치는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중년이 경험하는 갈등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영역별로 분류할 수 있는 연구가 시급해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년자녀를 대상으로 노부모와의 관계나 갈등을 살펴본 국내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중년기를 포함하는 성인자녀 또는 기혼자녀를 중심으로 노부모와의 관계 및 갈등에 관한 이전 연구들을 살펴보겠다. 첫째, 성인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노후 부양관', '부양부담', '부양의식' 등과 같은 부양문제와 고부갈등이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심리적 적응이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들이 일관되게 보고하는 바, 이러한 변인들이 부양스트레스를 증가 시킴으로서 중년자녀와 노부모와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밀양, 2004; 김태현, 1994; 조병은, 2006). 우리나라는 집단주의와 유교주의 사회로서 가족주의가 다른 어

는 문화면에서 보다는 강하게 작용한다(안태용, 2013). 즉, '효(孝)'에 대한 노부모의 역할 기대와 자녀의 의무감이 높을 것이며, 이에 따른 부양문제와 관련된 심리적 갈등과 부적응적 행동이 중년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균수명의 증가와 세대 간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부양문제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들이 중년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라고 일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부양부담 이외에 중년자녀가 경험하는 갈등요인들을 확인해 볼 것이다.

둘째, 기혼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갈등요인으로 노부모의 의존성과 노부모의 비지지적 행동과 관련된 요인이 있다. 노부모의 의존성은 기혼자녀들의 정서적·신체적 갈등을 증가시키며(박인아, 엄기욱, 2007; 주병애, 2003), 중년자녀와 노부모와의 갈등을 고조시켜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권중돈, 2003; 오영실, 2005). 그리고 노부모가 자녀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비난하고 과도한 요구를 하는 등과 같은 비지지적 행동으로 인해 기혼자녀와 노부모의 관계에서 부정적 상호작용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았다(박인아, 2012).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중년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경제문제', '건강문제', 그리고 '근접성'과 같은 상황적인 요인 이외에도 정서적 결핍이나 지나친 정서표현 등과 관련한 변인들이 갈등요인이 됨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셋째, 중년기와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노부모와 손·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역시 길어지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맞벌이 하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손·자

녀에 대한 양육은 노부모들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김미혜, 성기옥, 팽경희, 최희진, 최소영, 2011). 따라서 중년자녀가 노부모와 손·자녀사이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갈등도 초래되어 질것이라 예상된다.

성인자녀와 노부모와의 갈등에 관한 국외연구들을 살펴보면 특히 미국의 경우, 노부모부양에 따르는 자녀의 부양부담, 부양스트레스, 가족관계의 악화, 직업상의 어려움, 신체적·정신적 피로, 죄의식 등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딸의 입장에서 본 연구들이 대부분이다(Brody, 1985; Dwyer & Miller, 1990; Lu, 1997; Rosenthal & Matthews, 1989; Walker, Pratt, & Nancy, 1992). Bengtson, Giarrusso, Mabry와 Siverstein(2002)의 연구에서는 성인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세대 간 관계의 결속도와 애증의 상반감정이 갈등과 두 관계를 예측하는 변인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그 이외에도 아동기 부모자녀관계의 정도가 나쁠수록(Whitbeck, Hoyt, & Huck, 1994), 성인자녀 관계유형 중 불일치의 관계일 때(Van Gaalen, Dykstra, 2006), 그리고 형제자매들의 부양참여가 적을 때(Spize, Rogan, 1990)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관계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이어서 중년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을 확인·분류하고 각 영역별로 남녀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여성에 있어 중년기는 남성과 심리적으로 다른 방식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녀양육 역할이 감소되면서 자유감의 증가로 잠재된 능력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는 시기이기도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문제 사회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김명자, 1989). 김명자와 박연성(1989)

의 연구결과에서도 중년남성보다는 중년여성이 부부관계, 자녀관계, 노부모와 관계가 위기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중년기 남성의 경우, 직계가족을 이상으로 삼는 한국가족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자녀와 자녀와의 유대감을 중요시하는 노부모의 권위의식, 의존적 욕구사이에서 두 세대 모두에게 정서적 물질적 자원의 주된 제공자로서 부담이 큰 시기이기도 하다(윤진, 1985). 이러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바, 중년여성이 중년남성보다 노부모와 관계에서 경험하는 위기감으로 야기되는 갈등 또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양육자가 며느리이고 주양육자가 아내이기 때문에(조병은, 2007) 남성보다는 여성이 부양부담 또는 고부갈등, 그리고 손·자녀와 관련된 요인들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할 것이라 보여 진다. 또한 성인 딸과 노모와의 관계에서 성인 딸은 어머니와 높은 애착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유계숙, 1995; 조병은, 유은희, 이정순, 최혜경, 1996). 이러한 연구결과를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여성이 남성보다는 정서적 지지와 관련하여 보다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지지가 부족할 경우 훨씬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중년자녀와 노부모와의 갈등과 관련한 요인으로 ‘부양부담’, ‘고부갈등’, ‘노부모의 의존성’, ‘간섭’, ‘비난’, ‘경제문제’, ‘건강문제’, ‘부모와의 근접성’, ‘손·자녀 양육’, ‘관계유형’, ‘형제도움 정도’ 등이 갈등의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중년자녀가 지각하는 갈등을 살펴보고 영역별로 갈등을 분류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남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갈등을 이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년자녀와 노부모의 갈등을 진단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관계개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들에 있어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노년기의 전환점에 있는 중년 역시, 성숙한 노화 또는 잘 나이 들어감(well agin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정영숙, 이화진, 2014), 중년의 성숙한 노년준비에 관한 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부산소재 4년제 대학학부생의 중년부모 2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0세였고, 남자 62명(45.58%), 여자 74명(54.41%)으로 총 136명 참가자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참가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노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중년자녀가 76.47%로 가장 많았으며, 중년자녀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53.68%로 가장 많았다. 표 1에 중년자녀 136명의 연구참가자들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122명의 연구참가자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설문지는 회수 되었으나 질문에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은 '무응답' 66명, (2) 질문에 '없다'라고 응답한 41명, (3) 질문에 '부모님 돌아가심' 이라고 응답한 15명의 연구 참가자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서수균, 이윤희, 안정신, 정영숙(2013)이 개발한 개방형 질문지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서수균 외(2013) 연구에서는 연구참가자들이 다양한 갈등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내재적·외현적 대인반응(Wagnor, Kiesler & Schmidt, 1995) 모두를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참가자들의 인위적인 응답, 추상적인 응답, 그리고 경험의 재 구성화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경험사건을 기술하도록 질문지를 구성하였다(최상진, 이장주, 1999).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방형 질문의 내용은 4가지로 아래와 같이 질문을 제시하였다.

“최근, 혹은 최근 몇 년 간 부모님과 생각(의견, 뜻)이 달라서 기분이 상한 일을 두 가지 정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일로 생각(의견, 뜻)이 달라 기분이 상하셨습니까?”

“최근, 혹은 최근 몇 년 간 부모님에게 실망하거나 서운했던 일을 두 가지 정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일로 실망하거나 서운하셨습니까?”

“최근, 혹은 최근 몇 년 간 부모님에게 화난 일을 두 가지 정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일로 화가 나셨습니까?”

“최근, 혹은 최근 몇 년 간 부모님과 언성을 높여 싸웠던 일을 두 가지 정도 떠올려 보십시오. 최근에 경험한 갈등상황에서 질문 1번과 4번은 언어적 또는 신체적 다툼과 같이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외현적 행동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질문 2번과 3번은 갈등상황에서 부정정서가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적으로 경험하는 반응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표 1. 중년자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136)

		남	여	전체
		n=62(%)	n=74(%)	n=136(%)
연령	40 ~ 44세	8(12.90)	6(8.10)	14(10.29)
	45 ~ 49세	19(30.65)	45(60.81)	64(47.05)
	50 ~ 54세	22(34.48)	17(22.97)	39(28.67)
	55 ~ 59세	13(20.97)	6(8.10)	19(13.97)
노부모와의 동거여부	나의 부모님과 동거	7(11.29)	2(2.70)	9(6.61)
	나의 어머니와 동거	6(9.68)	2(2.70)	8(5.88)
	나의 아버지와 동거	0(0.00)	0(0.00)	0(0.00)
	배우자의 부모님과 동거	1(1.61)	1(1.35)	2(1.47)
	배우자의 어머니와 동거	1(1.61)	9(12.16)	10(7.35)
	배우자의 아버지와 동거	1(1.61)	0(0.00)	1(0.07)
	분가	46(74.19)	58(78.37)	104(76.47)
무응답	1(1.61)	2(2.70)	3(2.20)	
학력	무학	0(0.00)	1(1.35)	1(0.74)
	초졸	0(0.00)	1(1.35)	1(0.74)
	중졸	1(1.61)	1(1.35)	2(1.47)
	고졸	16(25.81)	27(36.49)	43(31.62)
	대졸	35(56.45)	38(51.35)	73(53.68)
	대학원 졸	9(14.52)	4(5.41)	13(9.56)
	무응답	1(1.61)	2(2.70)	3(2.21)
종교	무교	26(41.94)	16(21.62)	42(30.88)
	불교	21(33.87)	28(37.84)	49(36.03)
	기독교	7(11.29)	16(21.62)	23(16.91)
	천주교	5(8.06)	10(13.51)	15(11.03)
	기타	2(3.23)	3(4.05)	4(2.94)
	무응답	1(1.61)	1(1.35)	3(2.21)
경제수준	상	3(4.84)	3(4.05)	6(4.41)
	중	48(77.42)	58(78.38)	106(77.94)
	하	10(16.13)	13(17.57)	23(16.91)
	무응답	1(1.61)	0(0.00)	1(0.74)

주. 괄호안의 수치는 비율을 나타낸 것임.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분석의 여러 가지 방법들 중 현상학적 방법의 하나인 Van Kaam (1969)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진술 내용을 목록화, 범주화하여 현상에 대한 핵심을 밝히는 것으로 자료의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질문지에 기재된 응답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다. 둘째, 심리학 전공의 박사과정 3명의 연구원들이 전사된 내용을 가지고 각자의 의미 있는 부분들을 분류하고 검토하였다. 각자 분류 후 '1차합의' 모임을 통해 교차검토 후 갈등목록을 설정하였다. 이 목록에 따라 각자 응답내용을 재분류하였고 '2차합의' 모임을 통해 분류된 갈등목록에 따라 응답내용들을 검토하고 수정 그리고 재합의가 이루어 졌다. '3차합의'에서는 본 연구자들이 갈등목록들을 범주화하기 위해 갈등 및 갈등영역을 확인하고 최종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오로지 아들만 생각하고 딸자식은 생각하지 않는 일', '같이 사는 사람보다 용돈 많이 주는 형제 편애할 때', '아들은 조금만 관심을 보여도 고마워하고 딸은 당연히 부모에게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태도와 생각' 등의 문항에서 공통내용을 분석하고, 이 속성을 설명할 수 있는 목록을 설정하고 목록에 따라 범주화하여 갈등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갈등영역으로 분류함에 있어, (1) 갈등상황을 기술하기는 하였으나 모호한 표현으로 정확한 갈등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2) '경제문제', '건강문제' '형제문제'와 같이 단답형으로 기술하여, 구체적으로 갈등 요인을 구분 할 수 없는 경우 (3) 갈등이라 생각하기 보다는 '그저 잘해드리지 못해 미안함', '참고 넘어

감', '자식 된 입장에서 이해함' 등과 같이 노부모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미안함과 같은 정서반응 보인 경우는 갈등영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분류자간 신뢰도는 66.81%이었으며,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분류자간에 2/3이상의 일치를 보는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자료의 통계분석은 PASW 18.0을 사용하여 빈도, 비율, 평균, 그리고 χ^2 을 구하였다.

결 과

중년자녀가 지각한 노부모와의 갈등영역

표 2는 한국중년이 지각한 노부모와의 갈등영역을 분류하고 대표예문을 나타낸 것이다. 표 2를 보면, 중년과 노부모와의 갈등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진다. 대분류 차원에서는 3가지 영역 즉, '노부모와의 관계', '노부모의 자기관리', 그리고 '손·자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중년자녀는 '노부모와의 관계'영역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노부모의 자기관리'영역, 그리고 '손·자녀 문제'영역에서 가장 적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 3가지 갈등영역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결과였다. $\chi^2(2, N = 311) = 241.62, p = .000$.

'노부모와의 관계'영역 내에는 자식차별, 며느리차별, 그리고 장남편애를 포함하는 '편애'와 의견무시, 간섭, 독단적 행동, 그리고 비교 및 평가절하를 포함하는 '무시', 이해부족, 지나친 요구, 관심부족을 포함하는 '중년자녀에 대한 관심 및 배려부족', 거취, 제사문제, 병간호 문제를 포함하는 '부양부담', 그리고 자녀

표 2. 중년이 지각한 노부모와의 갈등영역 분류 및 대표예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표예문
노부모와의 관계(228)	편애(67)	자식차별(47)	오로지 아들만 생각하고 딸자식은 생각하지 않는 일. 같이 사는 사람보다 용돈 많이 주는 형제 편에 할 때. 아들은 조금만 관심을 보여도 고마워하고 딸은 당연히 부모에게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태도와 생각.
		며느리차별(14)	시부모님 병원입원하면 며느리만 간병 할 때. 남편이 직장문제로 의견이 같지 않아 갈등이 심할 때 며느리 편에서 이해해 주시지 않는다.
		장남편애(6)	둘째 아들집에 있으면서 큰아들 걱정.
	무시(64)	의견무시(28)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전혀 개선되지 않았을 때. 자식은 생각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하실 때.
		간섭(18)	우리 집 상황이 안 좋아 나 스스로도 상심이 크고 속상한데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려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이 부담됐다.
		독단적 행동(9)	혼자서 결정하고 사후에 얘기하는 것.
	중년자녀에 대한 관심 및 배려부족(49)	비교 및 평가절하(9)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할 때. 남보다 못하다는 말로 며느리를 평가절하 함.
		이해부족(21)	시부모님께 항상 신경을 쓰는데도 항상 섭섭한 소리만 하셔서 기분이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왔을 때 그에 대한 배려를 안해주는 일.
		지나친 요구(21)	당신들만 챙겨주시길 바랄 때 . 멀리 있는데 자주 와라하고 기다리는 일.
	부양부담(34)	관심부족(7)	형제의 안 좋은 일에 무관심한 부모님.
거취(16)		우리 부부는 함께 살길 권유 했으나, 석연치 않은 투로 거절하신 것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 어머님이 요양원에 들어가신다고 했을 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종종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했음.	
제사문제(11)		제사 참석으로 인한 문제.	
병간호(7)		몸이 약한 아버지가 오셨기에 운동을 시키려고 하니깐 운동 시킨다고 저한테 소리 질러서 싸운 적이 있다.	
노부모의 지나친 헌신(14)	자녀걱정(8)	자신(부모님)의 안위보다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	
	자기희생(6)	노인인데도 몸을 아끼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 몸 바치고 김장까지 다해주는 것에 대한 불만.	
노부모의 자기관리(72)	건강관리(40)	건강관리소홀(24)	건강 안 챙기고 무리해서 병남. 친정어머님이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일 좀 하지 말라고 화낸 적은 가끔 있다.
		치료거부(10)	무릎이 아프셔서 수술해 드리려고 했는데 안한다고 했을 때
		음주 및 흡연(6)	연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이 좀 과할 때
	돈 관리(21)	용돈 및 생활비(12)	용돈을 조리 있게 못 쓰시는 것 같아서
		재산분배(5)	남들보다도 남겨지는 유산이 적어 형제들이 서운해 한다.
	경제적 지원(4)	잘 살고 있는 자녀에게 돈 빌려준 경우.	
	노부모의 부부불화(11)	노부모의 부부불화(11)	부모님들이 부부싸움을 아직도 하고 있는 일.
손·자녀문제(11)	손·자녀문제(11)	손·자녀 교육(11)	손자들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할 때.

주. 괄호 안은 응답빈도를 나타냄.

걱정과 자기희생을 포함하는 '노부모의 지나친 헌신'이 중분류에 포함되었다. 이는 제시한 순서대로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chi^2(4, N = 228) = 42.57, p = .000$.

노부모와의 관계 갈등영역 다음으로 높은 갈등을 보인 '노부모의 자기관리 갈등영역'에는 노부모의 건강관리소홀, 치료거부, 음주 및 흡연을 포함하는 '건강관리'와 노부모의 용돈 및 생활비와 관련된 문제인, '재산분배', 경제적 지원문제를 포함하는 '돈 관리', 그리고 노부모 부부간의 문제로 인한 '노부모의 부부불화'가 중분류에 포함되었다.

가장 낮은 갈등을 보인 '손·자녀 갈등'영역에는 손·자녀 교육과 관련된 '손·자녀문제'가 중분류에 포함되었다.

중년과 노부모와의 갈등에 대한 남녀 차이

표 3은 중년자녀와 노부모와의 갈등영역에 대한 남녀차이를 제시한 것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부모와의 관계'영역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결과였다. $\chi^2(1, N = 228) = 14.75, p = .000$. '노부모의 자기관리'영역과 '손·자녀문제'영역에서는 남녀차이가 없었다. '노부모와의 관계' 영역 내에서 '편애'($\chi^2(1, N = 67) = 5.89, p = .01$)와 '중년자녀에 대한 관심 및 배려부족'($\chi^2(1, N = 49) = 32.87, p = .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남녀차이를 보였다. 두 가지 갈등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표 3. 중년과 노부모와의 갈등영역 및 갈등유형에 대한 남녀차이(N=311)

분류	남	여	전체
	n=131(%)	n=180(%)	n=311(%)
노부모와의 관계	85(64.88)	143(79.44)	228(73.31)
편애	10(7.63)	57(31.66)	67(21.54)
무시	36(27.48)	28(15.55)	64(20.57)
중년자녀에 대한 관심 및 배려부족	16(12.21)	33(18.33)	49(15.75)
부양부담	19(14.50)	15(8.33)	34(10.93)
노부모의 지나친 헌신	4(3.05)	10(5.55)	14(4.50)
노부모와 자기관리	39(29.77)	33(18.33)	72(23.15)
건강관리	25(19.08)	15(8.33)	40(12.86)
돈 관리	9(6.87)	12(6.66)	21(6.75)
노부모의 부부불화	5(3.81)	6(3.33)	11(3.53)
손·자녀 문제	7(5.34)	4(2.22)	11(3.53)
손·자녀문제	7(5.34)	4(2.22)	11(3.53)

주. N=전체반응빈도수임.

표에 제시된 수치는 응답빈도를 나타낸 것임.

괄호안의 수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전체 응답빈도에 대한 각 영역별 응답빈도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자녀가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을 알아 보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중년자녀가 지각한 노부모와의 갈등을 살펴보고 갈등영역을 분류하여 이에 따른 남녀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중년자녀가 경험하는 갈등요인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3가지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대분류 차원을 살펴보면, 중년자녀와 노부모 두 세대 사이에서 경험하는 갈등은 '노부모와의 관계'로 명명하였고, 노부모 개인 내 문제로 경험하는 갈등은 '노부모의 자기관리'로 명명하고 그리고 중년과 노부모와의 관계가 아닌 손·자녀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갈등은 '손·자녀 문제' 명명하여 3개의 갈등영역으로 분류되었다. '노부모와의 관계'영역이 73.31%로 가장 많은 갈등을 보였고, '손·자녀 문제'는 3.53%로 가장 낮은 갈등을 보였다. 그리고 '노부모의 자기관리'영역은 23.15% 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은 갈등을 보고한 '노부모와의 관계'영역에는 '편애', '무시', '중년자녀에 대한 관심 및 배려 부족', '부양부담', '노부모의 지나친 헌신'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편애'와 '무시'는 각각 21.54%, 2.57%로 가장 많은 갈등을 보였으며 '중년자녀에 대한 관심 및 배려부족'은 15.75%, '부양부담'은 10.93%, '노부모의 지나친 헌신'은 4.50% 순으로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부모와의 관계' 영역에서

는 남성보다(85회) 여성이(143회)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였다.

여기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중년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부양부담이 갈등요인으로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성인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부양문제를 강조하였던 이전의 선행연구 결과와는 달리, '노부모와의 관계'영역 내 다른 갈등에 비해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하나는 '노부모와 관계'영역 내 갈등내용을 살펴보면 정서적인 측면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인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는 단순히 의무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서적 유대에 기초한다는 김명자와 손서희(2005)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앞서 본 연구자가 예상한 바와 같이, 중년자녀의 부양부담은 감소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노부모와의 관계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중년자녀들의 의식변화가 반영된 것이라 보여 진다.

'노부모와의 관계'영역에서 남녀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히, '편애'에는 노부모들이 아들은 우선시 하고 딸은 등한시 하는 '자식차별'과, 고부갈등의 원인이 되는 '며느리차별', 그리고 장남만 우선시 하는 '장남편애'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중년남성(10회)보다는 중년여성(57회)이 '편애'로 인하여 더 많은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경신(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중년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부계혈연 계승을 중시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 하에서 성장하였다. 급속한 국가성장과 가족관계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남아선호사상이나 가부장적 가치관이 강하게 잔존해 있는 가족관계 내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갈

등이 더욱 심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중년자녀에 대한 관심 및 배려부족'으로 인한 갈등에서도 중년남성(12회)보다는 중년여성(33회)이 더 많은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에게 관심이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인지하는 성인자녀들은 부모와 낮은 수준의 관계의 질과 높은 수준의 갈등을 보인다는 Bedford(1992)의 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노모와 높은 애착수준을 보이는 여성이 더 높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혈연관계에 있는 딸이 주부양자인 미국의 경우, 부모부양으로부터 얻는 기쁨이나 위안이 더 크고 노부모와의 관계에서의 갈등이 적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이윤로, 1999 재인용). 또한 Lefkowitz와 Fingerman(2003) 연구에서는 노모와 중년의 딸이 매우 높은 수준의 긍정적 감정과 매우 낮은 수준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며, 중년의 딸은 노모에게 더 많은 긍정적 행동을 표현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의 성인자녀가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 수준과는 상이한 것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도 보여주듯이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이 반영되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즉, 한국의 노부모들은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엄격한 서열주의와 권위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를 경험한 반면, 성인자녀들은 개인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지향하도록 교육 받았다. 그러므로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한국의 중년의 여성 또는 중년의 딸은 '아들우선', '며느리 차별', '관심 부족' 등과 같은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둘째, 중년자녀들은 '노부모와의 관계'영역 다음으로 '노부모의 자기관리'영역에서 경험하는 갈등이 많다고 보고하였다. '노부모의 자기

관리'영역에는 노부모의 건강관리 소홀, 치료 거부, 음주 및 흡연 문제와 같은 '건강관리'와 용돈 및 생활비 문제, 경제적 지원, 재산분배 문제와 관련된 '돈 관리', 그리고 노부모의 부부문제와 관련된 '노부모의 부부불화'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바, 중년자녀들이 노부모의 건강이나 경제문제가 더 이상 노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의무감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남순현, 2004), 이 또한 노부모 자기 스스로 돌보고 책임져야 하는 노부모 개인 내 문제로 전환 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갈등을 보고한 '손·자녀 문제'갈등영역에는 손·자녀 교육문제와 관련된 '손·자녀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중년자녀가 노부모가 함께 보내는 시기가 길어진 만큼 노부모와 손·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육과 교육문제로 인해 갈등이 증가한다는 조병은, 이미숙, 강관혜(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손·자녀 문제'영역은 '노부모와의 관계'영역과 '노부모의 자기관리'영역 빈도(각각, 228회, 72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11회)를 보인다. 이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가 대학생자녀를 둔 중년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노부모들이 아동이나 청소년 손·자녀에 비해 대학생 손·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에 대한 관여도가 낮은 것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노인이 경험하는 갈등에 관한 최근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노부모 역시 관계를 더 중요시 하며, 특히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서수균 등, 2015), 또한 자녀의 자립이나 자녀의 자기관리, 경제적 문제, 그리고 손·자녀 양육과 교육과 같은 문제와 관련한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년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는 강한 애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습관과 가족전통을 공유하고 서로 도움이나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갈등의 내용은 조금씩 상이하지만 큰 범주에서의 갈등영역은 다소 일치하는 것이라고 보여 진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중년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어느 특정 영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년자녀와 노부모가 생활하고 관계하는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부양부담은 중년자녀들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차별’, ‘무시’, ‘관심 및 배려 부족’, ‘노부모의 지나친 헌신’과 같은 정서적 지지와 관련된 갈등영역에서 중년자녀들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즉 부모에 대한 중년자녀들의 경제적, 신체적 부양이 가족에서 사회로 상당부분 이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이다. 따라서 중년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정서적 지지가 중요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저해하는 갈등요인들을 해결할 수 있을 때 갈등이 감소하며, 건강한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전반적으로 중년여성이 중년남성들 보다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아들보다는 딸이 부모와 정서적 애착이 더 강하고 관계를 더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년여성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부적응적 심리상태를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셋째, 중년자녀와 노부모와의 갈등

은 두 세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손·자녀 문제와 관련된 영역까지 확대되었다. 따라서 중년자녀와 노부모와의 건강한 관계의 지속은 중년자녀와 노부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손·자녀들에게 좋은 모델링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하는 바이다.

Erikson의 발달이론에 따르면 이전 단계의 발달과업의 성공적 수행이 이후 발달의 성공을 이끌므로 중년기의 생성감 획득은 다음 단계인 노년기 발달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며 노년기는 앞으로 당면할 도전과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김민희, 신순옥, 201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년자녀가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을 어느 정도 자각하고 어떻게 해결 하는가 또한 생성감획득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자녀가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갈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탐색함으로써, 갈등을 진단하고 갈등해결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실증적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가 지니는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 자녀를 둔 중년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중년자녀와 노부모와의 갈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동기나 청소년 자녀를 둔 중년, 미혼인 중년 그리고 한 부모 중년자녀 등과 같이, 중년의 다양한 가족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자료 수집을 통해 본 연구결과를 재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중년자녀와 노부모와의 갈등요인과 갈

등영역을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경험하는 갈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확인된 갈등이 중년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중년이 지각한 갈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중년자녀와 노부모와의 갈등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중년자녀와의 관계에서 노부모가 지각하는 갈등에 관한 연구 또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교연구는 중년자녀와 노부모 모두에게 성숙한 노화의 삶으로 이끌도록 도와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중돈 (2003).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4(1), 11-28.
- 김경신 (2010). 한국여성과 재미한인여성의 가족가치관 비교연구 - 코호트 및 개인사분석을 통한 지속과 변화탐색.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1), 271-296.
- 김경신 (2010). 한국 중년여성의 갈등: 성, 세대, 그리고 가치관.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19-35.
- 김경신, 이선민 (1998). 중년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감과 관련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2), 93-106.
- 김두섭, 박경숙, 이세용 (2000).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와 중년층의 노후부양관. *한국인구학*, 23(1), 55-89.
- 김명자, 박연성 (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97-118.
- 김명자, 손서희 (2005). 기혼자녀(아들 딸)와 부부간 정서적 결속도에 따른 부양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3(7), 37-51.
- 김미혜, 성기옥, 팽경희, 최희진 (2011). 손자녀 양육 조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부모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 31(4), 905-923.
- 김민희, 신순옥 (2014). 중년기 성격과 노화불안: 성격 5요인, 생성감과 노화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4), 1-25.
- 김밀양 (2004). 고부관계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73-187.
- 김애순 (1993). 중년기 위기감 (2) : 회고적 청년기의 정체감 발달 상태에 따른 중년기 위기감 수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75-84.
- 김중서, 남종길, 정지웅, 이용한 (1982). 평생교육 체제와 사회교육의 실태. 서울: 정신문화연구원.
- 김태현 (1994). 노인의 가족결속도와 효 의식 및 우울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 한국노인과 재미한국노인을 대상으로. *한국노년학*, 20(2), 155-168.
- 남순현 (2004). 가족 내 세대갈등과 통합.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2), 1-15.
- 박인아 (2012). 기혼자녀의 노부모와의 관계 불만족이 노부모와의 관계 부적응 행동과 그 영향요인들 간의 관계에서 지니는 매개효과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6, 5-29.
- 박인아, 엄기옥 (2007). 노부모의 의존성이 성인자녀와 노부모간 갈등에 미치는 영향 - 아동기 피학대경험과 노부모부양의식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

- 학, 29(1), 179-194.
- 보건복지부 (2013). 노인학대 현황. 서울: 보건복지부.
- 서봉연, 유안진 (1983). 인간발달. 서울: 서울대학교.
- 서수균, 이윤희, 안정신, 정영숙 (2013). 한국 노인이 지각한 부모 및 성인자녀 갈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2), 389-409.
- 신성자 (2014). 중년 아들·딸의 노부모 돌봄 실천의지에 규범적 헌신과 정서적 헌신이 미치는 영향 - 부양부담의 매개효과와 성별 및 종교유무의 조절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9(2), 83-124.
- 신화용 (2004). 노모를 부양하는 재미교포 자녀와 노모간의 상호지원교환, 지원교환에 대한 평가가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3), 33-54.
- 안선영 (1996). 신세대와 중년기 부부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 및 보상감 분석. 한국인구학회, 23(1), 55-89.
- 안정신, 정영숙, 서수균 (2013). 성숙한 노화 태도와 성공적 노화 및 심리사회적 성숙의 관계: 성숙한 노화개념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2), 127-147.
- 안태용 (2013). 중년기 한국인 적응유연성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4(5), 2751-2781.
- 오영실 (2006). 노인의 의존성이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옥경희 (1996).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 부양. 한국가정관리학회, 14(2), 265-276.
- 유계숙 (1995). 성인 딸과 어머니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13(2), 78-85.
- 윤진 (1985).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가옥, 이미진 (2000). 장기요양보호노인 가족수발자의 정서적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2), 215-228.
- 이여봉 (2011). 부양지원과 세대 갈등: 딸과 친정부모 그리고 며느리와 시부모. 가족과 문학, 23(1), 41-76.
- 이원준 (2012). 중년부부가 지각하는 성장 시부모의 헌신이 노부모 수발헌신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자녀 간의 친밀성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7, 77-109.
- 이윤로 (1999). 치매노인 가족부양부담의 한·미 비교연구: 문화적 요인이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9(1), 45-59.
- 전예슬 (2009). 가구유형에 따른 한국노인의 건강상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학위논문.
- 정규형, 김종성, 윤지희 (2013). 노부모-자녀와의 구조적 접촉적 결속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자녀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60, 237-258.
- 정영숙, 이화진 (2014). 중년기의 성숙한 노화와 죽음 태도 및 죽음 대처 유능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2), 131-154.
- 조병은 (2007). 노년기 가족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현황과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1), 59-75.
- 조병은 (2006). 주부양자녀와 형제자매의 지원이 노모와의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재미교포자녀의 비교. 한국노년학, 26(1), 161-178.
- 조병은 (2002). 가족내 세대통합의 현황과 과제. 2002년 한국청소년학회 한국노년학회

- 공동학술대회-세대통합, 71-85.
- 조병은, 이미숙, 강란혜 (2001). 역할이론에 근거한 한국과 일본 취업모 가정의 조모역할과 조모와 손자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노년학회지*, 21(3), 213-239.
- 조병은, 유은희, 이정순, 최혜경 (1996). 2세대 모녀간의 애착 자율성 발달특성과 심리적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91-201.
- 주병애 (2003). 노인의 의존성과 부양자의 대처자원이 부양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성호 (2012). 중년의 사회학. 서울: 살림.
- 최상진, 이장주 (1999). 정(情)의 심리적 구조와 사회: 문화적 기능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1), 219-234.
- 통계청 (2013). *생애주기별 주요특성 및 변화분석*. 서울: 통계청.
- Bedford, V. H. (1992). Memories of parental favoritism and the quality of parent-child ties in adulthood.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7, 149-155.
- Borland, D. (1978). Research on middle age: An assessment. *The gerontology*, 18(4), 379-386.
- Brody, E. M., Hoffman, C., Kleban, M. H., & Schoonover, C. B. (1989). Caregiving daughters and their local sibling: Perceptions strains, and interactions, *The Gerontologist*, 29, 529-538.
- Dwyer, J. W., & Miller, M. K. (1990).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 of the caregiving network by area of residence: Implications for primary caregiving stress and burden. *Family Relations*, 39, 27-37.
- Erikson, E. H.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Norton.
-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 and Education* (2nd ed.). NY: Longmans, Green.
- Havighurst, R. J. (1996). 발달과업과 교육 [*Developmental task and education*]. (김재은 역). 서울: 배영사 (원전은 1972에 출판).
- Hess, B. B., & Waring J. M. (1978). Parent and child in later life: Rethinking the relationship. In Lenner, R. M., & Spanier, G. B. (Eds.), *Child influences on marital and family interaction: life-span perspective*. New York: Academic Press.
- Levinson, D. J. (1986). A conception of adult developments. *America Psychology*, 41, 3-14.
- Lu, L. (1997). Social support, reciprocity, and well-bing.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7, 618-628.
- Neugarten, B. L. (1997). Personality & Aging. In J. E. Birren & K. W. Shaie (Eds.), *Handbook of Psychology of Aging*. (pp.626-649).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Rosenthal, C. J., & Matthews, S. H. (1982). Is parent care normative? The experiences of a sample of middle-aged women. *Research on Aging*, 11, 244-260.
- Rossi A. S. & Rossi, P. H. (1990). *Of Human bonding: Parent-Children relationship across the life course*. New York: Aldine de Gruyter.
- Spitze, G., & J. Rogan (1991). Sons, daughter, and intergeneration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420-430.
- Van Gaalen, R. I., & Dykstra, P. A. (2006). Solidarity and conflict between adult children and parents: A latent class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8, 947-960.
- Van Kaam, A. (1996). *Existential Foundation of*

- Psychology*. NY: Doubleday.
- Wagner, C. C., Kiesler, D. J., & Schmick, J. A. (1995). Assessing the interpersonal transaction cycle: Convergence of action and reaction interpersonal circumplex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938-949.
- Walker, A. J., Pratt, C. C., Shin H. Y., & Jones. L. L. (1990). Motives for parental caregiving and relationship quality. *Family Relations*, *39*(1), 51-56.
- Whitbeck, L. B., Hoyt, D. R., & Tyler, K. A. (2001). Family relationship histories,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quality, and depressive affect among rural elderly peopl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20*, 214-229.
- 1차원고접수 : 2015. 03. 25
수정원고접수 : 2015. 06. 07
최종게재결정 : 2015. 06. 09

An exploratory study on perceived conflict with old parents of the Korean middle age

Su-gyun Seo¹⁾ Hyun-hee Shin¹⁾ Jeong-shin An²⁾ Young-sook Chong¹⁾

¹⁾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conflict in relationships between middle-aged Koreans and their parents. We classified areas of conflict and investigated potential gender differences. We used an open-ended questionnaire, which was completed by 136 middle-aged participants (aged 40-59 years). Our analysis revealed 23 conflicts classified into 3 areas: relationship with one's parents, self-management by elderly parents, and problems involving grandchildren. The most frequently reported area of conflict was relationship with one's parents. Women experienced more conflict than men. Specific responses in this area included: favoritism, disregard, lack of interest in and care for middle-aged children, burden of support, and excessive devotion. Women experienced more conflict in term of both favoritism and lack of interest in and care.

Key words : middle age, old parents, conflict, exploratory study